



오는 13일 창단공연을 앞두고 있는 '희망나무 영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4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연습에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케스트라로... 어린이 합창단으로...

다문화 하모니, 광주는 훈훈하다

'희망나무 영 오케스트라' 13일 첫 공연

'광주다문화오케스트라'도 창단 예정

지난 4일 광주 서구빛고을문화센터에서는 '희망나무 영 오케스트라'(이하 희망나무·단장 김정선) 연습이 한창이었다.

13일(오후 7시30분 금요일아트홀)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희망나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 가는 연주 단체.

엄마가 일본인인 이가영(서광초 3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 연주에 한창이고, 이미나(바이올린·이권일(철로) 남매는 필리핀 출신 엄마 안넬리 피탈라크루즈(40)씨에게 멋진 솜씨를 보여준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참여하는 연주단체들이 잇따라 창단되고 있다. 클래식 음악 교육의 경우 일정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좀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선뜻 추켜들기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최근 들어 '음악'을 매개로 한 사들이 속속 기획되고, 음악인들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창단한 '희망나무'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들을 필두로 (사)희망나무가 만든 단체다. 현재 신입단원을 포함, 총단원은 모두 19명으로 이중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7명이다. 아이들은 박새롬·조연주 등 음악 전공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매주 토요일 연

습을 해왔다. 이번 창단연주회에서는 지도 교사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 파헬벨의 '캐논변주곡' 등을 선사한다.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와 광주다문화지원네트워크는 '다문화 가정 음악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은 모두 71명. 초·중생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일가족 다섯명이 모두 참여한 가정도 눈에 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광주다문화 오케스트라'를 정식으로 창단한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은 한국현악기협회로부터 지원받았고 악기는 10일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레슨은 임복희·이제연·정지원 등 광주여성필하모니 단원들이 무료 봉사로 참여한다.

회원들은 2주 전부터 이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매주 토요일 체계적인 레슨을 받게 된다.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신애)는 '빛고을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을 조직했다. 11일 첫 연습을 앞두고 있는 합창단원은 모두 25명. 이중 20명이 중국, 카자흐스탄 출신의 이주여성 자녀들이고 5명은 내국인 아이들이다.

합창단은 매주 한차례씩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으며 2011년 5월 정기연주회도 열 예정이다. 특히 센터가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아시아소리모아합창단'과 합동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선 '희망나무' 단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음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청렴도 크게 하락

광주교육청 8위...전남교육청 13위→2위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내놓은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10점 만점에 8.78점(전국 평균 8.44점)을 기록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위를 차지, '우수' 등급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9.41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매우 우수)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8.83점),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8.66점)에서도 각각 16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걸취 청렴도가 크게 하락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8.98점) 4위에 올랐지만 이번 측정에서는 8.38점에 머물러 16개 시·도 중 12위로 부산(8.25점·16위)과 대전(8.33점·14위)·인천(8.33점·14위)과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전남도는 외부청렴도(8.57점)는 9위인 반면, 내부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는 7.84점(13위)에 그쳐 북부(7.61점·16위), 충남(7.68점·15위)·인천(7.69점·14위) 등과 함께 '미흡'으로 분류됐다.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69곳 가운데 광주 북구가 8.64점으로 16위(지난해 8.30점·42위)로 수직 상승했고 광주 동구(8.42점) 45위(지난해 34위), 광산구와 서구가 8.41점(46위)으로 50

위권(보통)에 머물렀고 남구는 8.28점(61위)으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양시(8.62점)가 73곳 중 5위(지난해 25위), 순천(8.59점) 7위(지난해 5위), 목포(8.42점)가 19위로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나주(8.33점)는 32위로 '보통', 여수(8.07점)는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면서 60위로 '미흡'으로 분류됐다.

군 단위에서는 장흥(8.71점)이 86개 자치단체 가운데 3위(지난해 1위)를 차지했고 담양(8.61점) 6위, 무안(8.60점) 8위, 장성(8.59점) 9위, 완도(8.54점) 15위, 진도(8.52점) 19위, 강진(8.51점) 24위, 곡성(8.50점) 27위 등이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보성·영암·함평(이상 8.48점), 구례(8.44점), 화순(8.43점), 고흥(8.32점), 해남(8.29점) 등은 '보통'에 머물렀고 신안(8.19), 영광(8.04)은 '미흡'에 그쳤다.

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남교육청(8.23점)은 지난해보다 무려 11계단 뛰어오른 2위에 올랐다. 광주교육청(7.95점)은 7위에 머물렀다.

31개 광역시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광주서부교육청(7.73점), 동부교육청(7.66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도교육청 산하 146개 지역교육청에서는 곡성교육청(8.93점)이 1위에 올랐다. 화순교육청(8.83점)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여수교육청(7.75점), 광양교육청(7.71점)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신증권 창업주

양재봉 명예회장 별세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이 9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25년 나주에서 태어났으며, 1943년 목포상고를 졸업했다. 이듬해인 1944년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 입행, 금융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관련기사 16면] 고인은 1973년 대한투자금융을 창업했으며, 1975년 중보증권을 인수해 현재의 대신증권을 일궈내 '한국 금융

계의 거목'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대신헌계연구소, 대신개발금융, 대신전산센터, 대신투자자문, 대신생명보험, 송촌문화재단, 대신인내서늘유림 등을 잇따라 설립해 대신종합금융그룹을 만들었다. 유족은 양희천 전 광주방송 회장 등 3남4녀.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3층 30호실(02-3010-2230)에 마련됐으며, 영결미사는 11일 오전 8시 명동성당, 장지는 경기도 용인 천주교공원 묘지.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탄력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내년 3월께 승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광주에 순환형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상고가'방식으로 결정된 도시철도 건설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2호선 건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9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1월 18~26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편익(B/C)에서는 통과기준치인 1에 조금 못 미치는 0.997이 나왔지만, 경제성과 지역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최종 분석에서는 0.502를 기록해 통과기준치인 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

진 의지,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평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로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환경부 등 유관기관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절차 등

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께 국토부의 승인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일부 시민·환경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아예 반대하거나, 건설방식을 지상고가 방식이 아닌 경전철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 백운광장, 광주역, 전남대, 첨단지구 등을 연결하는 총 길이 41.7km의 확대순환형 노선으로, 오는 2022년까지 1조7394억원을 들여 건설된다.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30%, 지방채 10%가 투입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의회 유급보좌관제 유보

전남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도의회는 9일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유급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를 위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이다.

도의회는 그러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한 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토록 해 추진키로 했다.

이기병(나주 1·민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총회 결과 대다수의 원들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위원회가 집행부에 편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명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집행부에 10여여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데는 광주시의회가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끝내 무산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회 인력의 해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게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면서 "향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기초 원서접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키스해링展 금·토요일 밤 9시까지 야간 개장 월요일은 휴관

POP:ART SUPERSTAR KEITH HARING GWANGJU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展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010.12.08 - 2011.02.27

주최 | 광주일보 gma 광주시립미술관 매일경제
 주관 | Amherst 엠허스트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미국대사관 UNICEF